

## 키르기즈스탄 레몬혁명의 평가

김경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목 차

- I. 서 론
- II. 레몬혁명의 발생 배경과 진행과정
- III. 레몬혁명의 대한 주변국의 입장
- IV. 레몬혁명의 영향
  - 1. 혁명의 배경
  - 2. 정치적 변화
  - 3. 혁명의 진행과정
  - 4. 경제적 변화
  - 5. 혁명과 민주주의
- V. 결 론
  - 1. 러시아
  - 2. 미국
  - 3. CIS 국가

### I. 서론

소비에트 붕괴 후 나타난 많은 신흥 국가들 중 러시아와 인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CIS라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전환기의 러시아는 CIS 국가들에게 소비에트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러시아와 반대노선을 걷고 있는 미국 등의 서방 세력에게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국을 비롯한 반러 진영의 국가들은 CIS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경제적 원조를 약속 하였고, 경제적 원조를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다.

2003년 11월 그루지야의 장미혁명(Революция роз)을 시작으로 미국 CIS 국가들의 친러 노선 탈피는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Оранжевая Революция)과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Лимонная ревалюция)<sup>1)</sup>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비에트 붕괴 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다. 또 이런 시민혁명의 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매체 이토기의 최근기사의 타이틀 “그저께는 베오그라드, 어제는 트빌리시, 오늘은 키예프, 내일은 모스크바”(Итоги. 2004. 12.07)처럼 구소련권의 색채혁명의 바람이

1)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 및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이외에도 구소련 권에서 불고 있는 최근의 무혈혁명의 움직임은 각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있었던 카자흐스탄의 대선에서는 초원 검독수리혁명(Steppe Golden Eagle Revolution)을 예상하게도 하였고, 타지키스탄에서는 플라타너스 혁명(Plane Tree)을, 벨로루시에서는 들소혁명(Bison Revolution)을, 그리고 2008년에 있을 러시아 대선에서는 자작나무혁명(Birch Tree Revolution)으로 칭할 수 있는 무혈선거혁명을 예상하기도 한다.(Herd, 2005B:11)

어디까지 불어 닥칠지가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sup>2)</sup>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기존의 권위주의 권력을 몰아내거나 친서방적 정치가들이 집권하도록 만든 직접적 계기인 민주시민혁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인 분석은 해당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활발한 NGO의 존재, NGO의 선거 감시·모니터링에 대한 서방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서방 국제기구들의 선거감시 활동 등이 함께 상호 작용하여 민주시민혁명의 성공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sup>3)</sup>

하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진행된 혁명은 시간이 갈수록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는 이미 친러 세력과 반러 세력이 연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루지야는 혁명 이후 오히려 사카쉬빌리의 독재체제가 강화되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악화 되었으며, 결국 2008년 8월에는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은 배경과 성격이 그 상징만큼 선명하지 않다. 독립 후 15년간 집권한 부패 독재정권이 조작까지 자행한 것에 분노한 민중이 봉기한 외형은 민주 혁명이나 집권세력이 의식을 독차지한 총선결과는 민중봉기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sup>4)</sup>

위와 같이 이 글에서는 색채혁명 중 가장 늦게 시작되었지만, 가장 빠르게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의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혁명의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색채혁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레몬혁명의 배경, 진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혁명에 대한 CIS 국가들과 당시 CIS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통하여 혁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내부적으로는 레몬혁명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혁명 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경제의 변화를 알아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에 레몬혁명을 전반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색채혁명 중 가장 늦게 발생한 레몬혁명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평가는 퇴색된 혁명이라 불리고 있는 세 국가의 색채혁명에 대한 비판과 연구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민주주의 혁명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해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좋은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sup>5)</sup>

## II. 레몬혁명의 발생 배경과 진행과정

### 1. 혁명의 배경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은 인구 약 530만 명, 일인당 국민소득 약 300달러로 천산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약 20만km<sup>2</sup>로 남한의 2배 정도인 국가이다.<sup>6)</sup> 이러한 작은 국가에서 발생한 혁명이 세계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 구소련 권에서 발생한 부패와 권위주의로 물든 체제가 키르기스스탄의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즉, 1990년대 붕괴된 구소련체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체제를 10년

2) 이채문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2007)

3)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총선 이후의 정치 현황: 재민주화의 험로"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2008)

"На задворках России шевелится демократия . . . с помощью США: Накануне выборов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падные группы предлагают оппозиции помощь ("The Wall Street Journal"США )" (27 февраля 2005)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World Socialist Web (2005. 3. 31)

4) 강병태 지평선-레몬혁명 논란 -한국일보(2005.03.28)

5) Henry E. "Hale Democracy or autocracy on the march? The colored revolutions as normal dynamics of patrimonial presidentialism" (2006)

6)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7) "Kyrgyz opposition groups unite", RFE/RL Newsline, Vol. 8, No. 201, (22 October 2004) available at <http://www.rferl.org>

이상 겪었는데, 이러한 체제는 민중혁명인 2003년 11월 그루지야 ‘장미혁명’과 2004년 11월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에 의해 와해되었다. 그러므로 연이어 일어난 2005년 3월 키르기스스탄 ‘레몬혁명’<sup>8)</sup>은 민중혁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연속성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것이다<sup>9)</sup>.

레몬혁명의 내부적 시발점은 키르기스스탄 과학아카데미 원장이었던 아카예프(Askar Akayev)의 장기집권과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2005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었다.<sup>10)</sup> 2월 27일 1차 총선과 3월 13일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되었고, 총선 결과 여당이 75석 의석 중 59석을 차지하고 야당 의석은 6석에 그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선언이 3월 14일 발표되자, 야당과 국제 선거감시단은 불법적인 투표권 매수와 언론매체 조작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선거에서 아카예프 대통령의 32세인 딸과 29세인 아들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였다.<sup>11)</sup>

레몬혁명의 발생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도 큰 몫을 했다.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NDI), Endowment for Democracy(NED), Freedom House, Coalition for Democracy and Civil Society(CDCS), European Network of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ENEMO) 등의 NGO를 통한 막대한 자금투입이 없었더라면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체제변화기를 겪고 있는 구소련권 국가들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허용한 ‘자유지원법(Freedom Support Act)’이 1992년에 미국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금지원법에 의한 2004년에 키르기스스탄에 제공된 미국의 지원금은 1,200만 달러에 이르렀다.<sup>13)</sup> 미국이 지원한 자금과 이러한 자금으로 인해 시행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야당에게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이 제공하는 인프라는 NGO지도자들과 키르기스스탄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었다.

## 2. 혁명의 진행과정

초기의 시위는 코츠코르(Kochkor), 탈라스(Talas)를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패배한 선거 후보자들의 일부 지지자들 개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그림1 참조). 예를 들어, 오쉬(Osh)지역의 우즈겐(Uzgen)에서 소수의 표차이로 낙선한 마두마로프(Adahan Madumarov)<sup>14)</sup>의 지지자들이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선거위원회에 마두마로프(Adahan Madumarov)를 당선자로 발표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3월 14일 알라이(Alay) 선거구의 술타노프(Marat Sultanov) 지지자들과 탈라스지역에서 패배한 진베코프(Ravshan Jeenbekov)의 지지자 5,000여명이 길을 막거나 정부청사를 점령하여 지사나 정보 관료들을 인질로 잡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자로 발표하기를 요구하였다.<sup>15)</sup>

[w.rferl.org/newsline/2004/10/221004.asp](http://w.rferl.org/newsline/2004/10/221004.asp).

ICG interview, Osh, October (2003)

8) 튜립혁명(тюльпанная революция)이라고도 함

9) 이채문.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친 서구 NGO의 역할. 한국사회학회.(2005)

10) 고재남.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2005)

11) 황성우. 계속되는 시민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국제지역정보 05년 4월호(2005)

12) “На задворках России шевелится демократия . . . с помощью США: Накануне выборов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падные группы предлагаю оппозиции помощь (“The Wall Street Journal”/США )” (27 февраля 2005)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World Socialist Web (2005. 3. 31)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World Socialist Web (2005. 3. 31)

13)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14) ICG interview, Adahan Madumarov, Bishkek, (12 May 2004)

ICG interview, Bishkek, (July 2004)

15)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이에 야당 지도자들은 이들 개인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재빨리 이용하였다.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오투바예바(Roza Otunbaeva), 아사노프(Bektur Asanov), 베크나자로프(Beknazarov) 등의 야당지도자들은 3월 15일에 잘랄라바드(Jalalabad)에서 쿠릴타이(Kurultai)<sup>16)</sup>를 개최하여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며 아카예프(Askar Akaev)의 사임을 촉구하였다.

3월 18일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의 오쉬(Osh)지역에서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점거하였고, 뒤이어 3월 21일에 개최된 쿠릴타이(Kurultai)에서는 우즈베크인 알티코프(Anvar Artykov)를 지역의 민중 지사로 선출하였다. <sup>17)</sup>같은 지역에 두 명의 지사가 존재하는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는 현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놀란 정부 측은 아카예프(Askar Akaev) 대통령의 특사를 해당지역에 파견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3월 19일에는 오쉬(Osh)와 잘랄라바드(Jalalabad) 지역의 점거된 정부청사에 정부군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다음날 아침 잘랄라바드(Jalalabad)에서는 10,000여명의 시위대에 의해 정부청사가 다시 점거되었고,<sup>18)</sup>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려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현지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관료들 대신 자신들의 대표를 임명하기도 하는 등 3월 21일 이후 오쉬(Osh)와 잘랄라바드(Jalalabad) 등의 주요 남부지역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sup>19)</sup>(그림1 참조)

<그림 1> 키르기스스탄의 행정지역과 초기 시위지역



"Революция толп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арварство против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авторитаризма: Бунт оппозиции на юге киргизи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вой не с узбекистаном":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5.03.22) 재구성.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 비슈켄(Bishkek)<sup>20)</sup>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기는 하였지만 남부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동안 비교적 조용하였다. 그러나 3월 22일 아카예프 대통령은 남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노선을 채택하기로 하고 내무장관에는 두세바예프(Keneshbek Dushebaev)를, 검찰총장에는 수탈리노프(Murat Sutralinov)를 각각 임명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강경론자인 이들은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시위대 진압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sup>21)</sup> 비슈켄(Bishkek) 중심가

예를들어, 항의는 3월14일 탈라스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서 자고 있던 후보자 진베고프의 최대 5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그 건물 중 하나를 점거하고 24시간 동안 그곳의 장관과 관료 인질들을 잡고 있었다.

- 16) 황제의 선출, 외국인정 결정, 법령 공포 등 국사를 논의할 때 황제나 황족의 대표자가 소집한 전통 회의. 야후! 백과사전 www.yahoo.com
- 17)비록 알티코프의 연류에도 불구하고 데모에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민족의 숫자는 적어졌지만. 우즈베키스탄민족들은 일반적으로 남쪽 키르기스스탄 반대세력의 지도력을 신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Akaev에게 환멸을 느꼈다.
- 18) "Киргизия :власти готовы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оппозицией " BBC. RUSSIAN .COM (2005.03.21)
- 19) Революция толп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арварство против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авторитаризма:Бунт оппозиции на юге киргизи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вой не с узбекистаном: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5.03.22)
- 20) 옛 프룬체(Frunze)
- 21)" Власти готовы применить силу" BBC. RUSSIAN.COM, (2005.03.24)

에서 청년단체인 켈켈(Kelkel)과 야당지도자 마리포프(Bolot Maripov)가 주도하는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주동자를 억류하였다.

사태는 극심해졌고 급기야 3월 24일 야당지도자들은 비쉬켄(Bishkek)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면서 지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sup>22)</sup> 3월 24일에는 다양한 지역의 시위대들이 집결하였다. 예를 들어,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시지코프(Usen Sydykov), 베크나자로프(Beknazarov) 등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았고, 오투바예바(Roza Otunbaeva)는 남부의 시위주도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진베코프(Jeenbekov)는 탈라스(Talas)로부터, 자파로프(Japarov)는 코츠크르(Kochkor)로부터 시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 청사 인근광장에 집결하였고, 야당지도자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 또한 시위대들이 투석을 하기 전에는 적극 진압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대통령궁으로 물러가는 시위대와 청년들 간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경찰들은 시위대를 저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곧바로 시위대는 아카예프(Askar Akaev)가 이미 떠나고 없는 대통령궁을 점령하였고, 야당지도자인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가 도착하여 야당 지도자 중 한사람인 쿨로프(Kulov)의 석방을 발표하였다.<sup>23)</sup> 동시에 국영 TV방송국이 점령되었고, 시위대들에 의해 아카예프(Askar Akaev) 친족들이 운영하는 상가 및 인근시내가 약탈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총선 결과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야당세력들은 연합을 통해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하였으며 모스크바로 피신한 아카예프(Askar Akaev)는 4월 5일부로 사임을 발표하였다.<sup>24)</sup>

아래 표는 레몬혁명의 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레몬혁명의 발발과정

일시	사건
1990년 10월	아카예프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1991년 10월	아카예프 단독출마 민선 대통령 당선
1995년 12월	대통령 당선 연임
2000년 10월	대통령 당선 연임
2005년 2월 27일 , 3월 13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자행
2005년 3월 18일	잘랄라바드, 오쉬 등 지방도시에서 시위발생
2005년 3월 21일	아카예프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부정선거 조사명령
2005년 3월 23일	시위진압 실패를 사유로 내무장관과 검찰총장해임 수도 비쉬켄에서 반정부시위가 시작, 전국으로 확산 수명의 시위대 사망

22)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야당 정치인들은 3월24일 Bishkek에서의 주요 집회에 동의했고 지역의 지지자들을 모아 수도에서의 지원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아침에 수천의 사람들이 Bishkek 교외의 Nazaraliev 병원 앞에 모였고, 그 후 대통령의 관저로 향했다. 대규모의 Almaz Atambaev의 지지자들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부터 주요 Ala-toor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23) "Кремль: Аскар Асаев находится в России" BBC RUSSIAN.COM (2005.03.27)

24) "Хаос в Бишкеке продолжает разрастаться" (2005.02.25) STRANA.RU

2005년 3월 24일	아카예프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피신 야당세력을 포함한 시위대들이 주요 국가기관 점령 대법원 총선결과 무효 선언
2005년 3월 25일	바키예프 임시대통령 선출
2005년 4월 5일	아카예프 대통령직 사임
2005년 7월 10일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고재남.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중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을 재구성

### III. 레몬혁명의 대한 주변국의 입장

시민혁명이 발발하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구소련국가는 취약한 지도자와 강력한 반정부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한 외부 세계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국가이다.<sup>25)</sup>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후에서도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숨 가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당 구소련지역의 정치적 난제인 현 권력의 사회통합을 위한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 문제는 해당 국가 정부의 자체적 리더십과 이를 통한 국가운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의 정치적 변화는 외부세력 지원에 의한 혁명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1.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혁명은 곧 연방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푸틴 정부에 들어서 정국 안정과 성장경제의 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이 메드베데프로 바뀌었으나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아직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sup>26)</sup> 또한 러시아는 지난 15년 동안 총선, 대선을 통해 정치엘리트의 교체를 제도화시켜왔다.

구소련 붕괴이후 1991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벨로루스의 대통령들을 브레스트의 한 별장으로 불러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루스(러시아)족 국가들만의 독립국가연합(CIS)을 출범시킨 데에 대한 실망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에 모여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자원빈국인 나라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봐야 빈곤의 공동체밖에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할 뿐이었다.<sup>27)</sup>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갖는 것을 러시아가 견제하지 못한 것은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동안 미국의 호전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푸틴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을 묵인하는 대신 체첸반군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체첸사태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지금은 러시아의 태도는 달라졌다.<sup>28)</sup> 러시아는 여타 구소련국가에 친서방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점을 경계

25) 고재남.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2005)

26) 고재남.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2005)

27) 김영희 “미국 독주에 도전장을 낸 중·러동맹” 중앙일보. (2005. 7. 7)

하고 있으며, 여타 CIS국들과의 정치·군사·경제 협력과 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CIS 국가와의 협력을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sup>29)</sup>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및 세계질서 주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 4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약속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양국 간 ‘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강적 앞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30)</sup>

## 2. 미국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1991년에 비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아졌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미군 기지를 확보했다. 겉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했지만 미국의 속셈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중앙아시아 진출이었다.<sup>31)</sup>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에도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1만2940명의 미군을 계속 배치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200~1500명의 병력을 순환 배치시키고 있다(그림2 참조).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국가들이 이들 지역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석유 자원 때문이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카스피 해 지역은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170억~330억 배럴에 이른다. 기존의 송유관은 카스피 해를 중심으로 북쪽 경로와 남쪽 경로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경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하여 러시아를 거쳐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를 거치거나 러시아와 흑해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진다. 남쪽 경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 체첸 및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흑해를 거쳐 유럽으로 흘러든다. 8년간의 논란 끝에 2002년 미국의 주도로 착공된 새로운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그루지야의 트빌리시를 거쳐 터키의 세이한까지 원유를 수송한다. 특히 이 새 송유관은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 해 원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유력 석유회사들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sup>32)</sup>(그림2 참조)

또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32조 입방피트로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과 비견된다. 이 지역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의욕적으로 석유 개발에 나서면서 세계의 주목 대상이다.<sup>33)</sup>

그렇다면 왜 구소련권 국가들의 색깔혁명에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NGO<sup>34)</sup>를 통한 평화적인 민중봉기와 같은 우회적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옛 동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립국가연합은 이른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 이익에서도 러시아의 이익과 직접적으

28) 러시아는 CIS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지하는 CIS 관찰 전도단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다.

29) 박민희 “이번엔 키르기즈 레몬 혁명” 한겨레 (2005.02.02)

Craig Smith, "West plays key role in Kyrgyzstan", The New York Times, (30 March 2005)

30) 박병광 “밀착하는 중국-러시아, 그 배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월간 뉴스한국. (2007. 4. 1)

31) Kyrgyzstan "Political transition" Crisis Group (2005)

예를들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카예브의 조건(조약)에서 헌법적 제한을 지적하는 것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종종 말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관련된 계약들의 실패를 볼 때, 미국정부는 중앙아시아에 있어 좋은 보도기사를 필요로 한다

김영희 “미국 독주의 도전장 낸 중·러 동맹” 한겨레 (2005.07.07)

32) 정병기 “색깔혁명과 국가이익의 세계재편전략” (2005.04.21)

33) 배무영 “미-러, 다시 군사적 대결로 가는가” 한겨레신문. (2004. 7. 6)

34) “На задворках России шевелится демократия . . . с помощью США: Накануне выборов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падные группы предлагают оппозиции помощь ("The Wall Street Journal" "США ") (27 февраля 2005)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World Socialist Web (2005. 3. 31)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3. 31)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World Socialist Web (2005. 3. 31)

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 선부른 군사적 개입이 몰고 올 파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침 이 국가들은 오랜 독재정체에 시달려 왔다는 공통점이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민주화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친미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존재한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강한 색깔을 상징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이 살육의 이라크 전을 두고 “퍼플(보라색) 혁명”이라고 지칭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5)</sup>

<그림 2>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지역 미군 배치현황



자료: “중앙아시아 미군배치 현황” 중앙일보 (2005. 8. 16)에서 발췌

미국이 중앙아시아 진출로 얻는 이득은 크다. 러시아의 중동 걸프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2020년 정도를 시야에 두고 중국을 배후에서 압박하고, 카스피 해의 석유를 둘러싼 유라시아의 파워게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미국이 2005년 6월 말 인도와 군사협력협정을 맺은 것도 장기적인 중국포위 전략의 중요한 수순이다.<sup>36)</sup>

### 3. CIS국가

CIS 국가들 대부분이 구소련붕괴 후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의 만연, 어려운 국민 생활 여건 등을 경험하여 시민혁명의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시민혁명 성공은 여타 CIS국가들로 하여금 시민혁명의 발발여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타CIS 국가들은 한편으로 권력공유, 언론통제 강화, 서방세계와 연관된 NGO활동제한 등의 반정부세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부패 척결, 사회보장 혜택 확대 등과 같은 조치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및 독재정권을 감안할 때, 국내적 조치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제도가 안착되는 데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 IV. 레몬혁명의 영향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혁명으로 보이지만, 키르기스스탄에 앞서 시민혁명을 성공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키르기스스탄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놓여 있다. 두 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은 일단 치안부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수도인 비슈켄(Bishkek)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약탈과 파괴, 방화 및 주민들의 유혈폭력 사태

35) 정병기 “색깔혁명과 국가이익의 세계재편전략” (2005.04.21)

36) 김영희 “미국 독주의 도전장 낸 중.러 동맹” 한겨레 (2005.07.07)



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속출했다.<sup>37)</sup> 언론의 사태에 대한 과장 보도일 수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찰 및 행정력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후세인 이후 이라크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았고 무엇보다도 치안유지가 급선무였다. 이러한 치안공백 사태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시민혁명이 명확한 대의명분과 정치적 구심점 없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그 이후 국가의 행보에 있어서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 1. 정치적 변화

레몬혁명의 성공적 실현으로 아카예프(Askar Akaev)를 뒤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Kurmanbek Bakiev)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키예프(Kurmanbek Bakiev)는 전임 대통령인 아카예프(Askar Akaev)가 망명한 뒤 수상·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인물이며, 전임 대통령에 반대하던 당시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내각을 조직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레몬혁명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는 정부 내의 분파 간, 그리고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다툼과 이합집산으로 불안정한 정치적 궤적을 그려왔다.<sup>38)</sup> 혁명의 이념 중 하나는 대통령에 비해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하에서는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되어 기대와 역행하는 측면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집권 세력의 야당에 대한 억압적 태도와 언론 상황을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정당 정치는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도자, 씨족 및 지역에 기초하여 정파적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가부장적, 지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물과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연합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sup>39)</sup>

레몬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2005년 2월의 의회선거 후 최근 정치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2007년 12월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 의회(조고르쿠 케네쉬, Jogorku Kenesh) 선거였다. 두 달 전 국민투표에 의해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sup>40)</sup> 2007년 12월의 총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대통령은 친 대통령 선거연합 악졸(Ak Jol: 진정한 도정, True Path)<sup>41)</sup>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07년 10월 중순). 총선에서 악졸은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행정적 지원과 헌법의 여세를 몰아 61.7%를 득표하였고,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법에 따라 90석으로 늘어난 의석 가운데 71석을 차지하였다. 11.3%를 득표한 제1야당 아타메켄(Ata Meken)당이 오쉬(Osh) 시에서 0.5%이상을

37)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대통령 관저 밖에서 젊은이들과 폭동 경찰 사이에 싸움이 잇달아 일어났다. 경찰은 두 번 항의자 들을 물러나게 하려 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통제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났다. 몇 분 후 항의자들은 대통령 관저 안에 있었고 곧 관저 내에서 종이와 의자들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30명 정도의 젊은 군이 부대가 들어왔고 한패가 되어 KelKel 회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38) 재무부 장관은 Akylbek Japarov의 사건이 저널리스트와 시민사회에 특별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척들을 핵심 주축으로 세관과 재무경찰(financial police)에 지명한 것으로 고소당했었다. 그는 여럿의 재무경찰을 자신의 개인적 보디가드로 Kochkor에 두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알려진 대로 그의 반대자들을 사살하는 사건에 관련되었다. 한 명은 부상당했다. Bakiev는 세관과 재무경찰에서 그의 지휘권을 없앴지만 실질적인 장관으로 남아있었다. Japarov는 그의 형과 그리고 다른 믿을 수 있는 동맹자들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Crisis Group interview, Bishkek, (21 April 2005). Use of relatives because they could be trusted was widespread, and in some cases understandable, but it increased the impression of nepotism.

39)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총선 이후의 정치 현황: 재민주화의 혐오.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2008)

Zaynidin kurmanov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2006)

40)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서 전국 총계 5%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며, 광역 행정구역인 6개 지역들과 2개의 주요 도시들에서 반드시 0.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총선에서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당이 수상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회 의석을 가진 특정 정당에게 다른 정파와 연합을 형성하도록 위임하도록 되어 있음.

41) 러시아의 권력당, '통합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유력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면서 큰 당을 형성.

득표해야 하는 지역 득표 장벽을 넘지 못함으로써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6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악졸(Ak Jol: 진정한 도정, True Path)이 약 80%의 의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1%를 차지하고도 개정 선거법에 따라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게 되자 아타메켄(Ata Meken)의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과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국제 선거감시단 역시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들어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또 다시 정치적 분란의 씨앗이 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야당 세력은 올 여름까지도 의회 선거결과에 항의하면서 갈등상태에 있지만, 양 세력이 모두 자제함으로써 대립이 증폭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성적 정치 불안에 지친 시민들이 야당의 호소에 호응이 저조하며 반정부 세력 역시 더 이상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sup>42)</sup>

## 2. 경제적 변화

2007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8.2%로 2006년부터 정치가 안정되면서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레몬혁명에 의한 정권교체 이후의 과감한 개혁의지 성장세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주변국(카자흐스탄)의 건설 호황으로 2007년 기준 건설업부문 성장률이 700%를 상회했다. 게다가 군사적, 지정학적 요충지로 다른 CIS 국가들보다 상대적인 무역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sup>43)</sup> 한편, 2008년 경제성장률은 4.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 평가기관들은 보고 있다.<sup>44)</sup> 그 저하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카자흐스탄 금융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으며, 카자흐스탄 금융자본이 키르기스스탄 금융과 건설업 및 부동산에 크게 유입됐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도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고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세계 경기분석기관들에 따르면 2008년 키르기스스탄 CPI(Consumer Price Index)는 20~24%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식료품비(25% 상승)와 산업자재비(15%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가스 수입이 전년대비 45%가 늘었으며, 주 수입처인 우즈베키스탄의 가스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어, 향후 산업생산력 저하는 물론 물가상승의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sup>45)</sup>

또 다른 요인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전력문제를 들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90%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Toktogul 수력발전소는 2008년 수위하락으로 전력생산의 문제가 야기됐으며, 2008년 동절기 대비전력 문제는 물론 산업생산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러시아 국영기업 Gasprom과 키르기스스탄 국영기업 Kyrgyzgas 민영화 및 수력발전소 현대화 추진 계약을 추진했으나, 러시아-그루지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원유가 하락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레몬혁명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이유인 사계절만년설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산악호수 인 이식쿨(Isyk Kul)호수<sup>46)</sup>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인프라 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관광산업에 빛을 보지 못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현재 관광객유치에 힘쓰고 있다. 뚜렷한 생산기반시설이 없어 전형적 낙농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 무기로 관

42)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총선 이후의 정치 현황: 재민주화의 험로.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2008)

43) 평균관세율 4.6%

44) 키르기스스탄 통계청. "키르기스스탄 경제동향"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2008. 11. 12)에서 재인용

45)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분석 (2008. 11. 12)

46) Roman Mogilevsky "Role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Disciplines: Kyrgyzstan's Experience (W a r s a w , J u n e 2 0 0 4)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은행업무, 전기통신, 관광 여행 등을 해외 투자로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Issyk-kul 은 리조트 지역의 투자들을 증가시키고 있어 정부와 분석가들이 이 리조트 지역의 관광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스웨덴의 한 과학자가 ‘산타클로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연구논문(47)을 발표하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즉각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자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매년 세계 산타클로스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빠르게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키기도 했다.(48)

### 3. 혁명과 민주주의

키르기스스탄은 레몬혁명 후 한 차례씩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준수되고 있으나 자유와 민주주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49) 아래 표는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화 정도의 평가이다.(50)

키르기스스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olitical Rights Score	6	6	6	6	5	5	5
Civil Liberties Score	5	5	5	5	4	4	4
Status	Not Free	Not Free	Not Free	Not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자료: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Map of freedom 재구성.

위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 정도는 혁명 후 과거에 비해 약간 상승했으나 아직 '부분적인 자유'(Partly Free)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완벽한 민주주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CIS 국가들은 레몬혁명 당시에 강력한 독재정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키르기스스탄에서 진행되었던 혁명정국이 주변 CIS국가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거리였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 정도, 야당 등 반정부 세력의 조직화 정도, 정권의 반대파 진압 능력 및 의지 등을 키르기스스탄과 비교하였을 때,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또 다른 민주화 혁명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아시아는 미국과 유럽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의 세력경쟁에 맞물려 시민혁명의 발발 가능성은 사전에 파악되고, 친서방국가로 돌리기 위한 미국이나 유럽의 반정부단체와 시민단체를 향한 지원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나 러시아 중국의 직접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낮은 생활수준, 만연한 부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반면, 축출된 아카예프(Askar Akaev)는 집권 초기(51)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의 섬’이란 불릴 만큼 상대적으로 온건한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다. 그 이후 아카예프(Askar Akaev)는 점차 반대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갔으나 확실한 민주주의도 철두철미한 억압체제도 어중간한 체제를 유지하다가 권좌에서 축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임 아카예프(Askar Akaev) 정권의 실정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52)에서 비롯된 것

47) Anders Larsson (2007) Santa should live in Kyrgyzstan. SWECO

48) SBS 뉴스

49)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총선 이후의 정치 현황: 재민주화의 힘로.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2008)

50) 프리덤하우스(<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

Score(최고지수:1, 최저지수:7),Status(Not Free, Partly Free, Not Free로 구분됨)

51) ICG interview, Kubatbek Baibolov, parliamentary deputy, (17 November 2003)

52) 아카예프 자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선거권 있는 시스템은 가족이 의회를 통제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것을 디자인했다. 더 불어 키르기스스탄 내에서의 사업도 좀 더 광범위 하게 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족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기도 했다. 또

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순탄하게 민주화를 이룩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와 의회로 보다 많은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전임 대통령 보다 더욱 더 권한이 강화된 바키예프(Kurmanbek Bakiev)가 이를 양보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sup>53)</sup>

## V. 결론

위와 같이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혁명과 거리가 많은 정치적인 이슈였다.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은 구소련 붕괴 후 부패와 권위적인 독재체제로부터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정치적 행동의 산물로, 명확한 대의명분이 없고 구심점이 없는 주변 강국들에 의한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혁명 이후의 키르기즈스탄은 단지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 ‘사람만 바뀐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키르기즈스탄 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지역 간 분열이 심화되고 이에 더해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인 비슈케(Bishkek)에 주둔해 있는 미군철수문제도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대통령의 재검토 불필요성 주장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진출과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유럽, 인도 등과 세력을 형성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상황에서 키르기즈스탄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과거와는 다른 주변국의 상황도 키르기즈스탄의 앞날에 먹구름을 더한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찾아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군내문제와 끝내지 못한 전쟁으로 키르기즈스탄 뿐 만 아니라 CIS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다. 2008년 8월 에 벌어진 그루지야 전쟁은 CIS 지역에서의 달라진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즈스탄이 취해야 할 것은 당연히 실리외교 이며, 이 실리외교에는 미국과 러시아 뿐 만아니라 중국과 EU, 그리고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루지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반러 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집권한 바키예프(Kurmanbek Bakiev)가 쉽사리 친러 노선을 걷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리외교를 추진함에 있어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강경한 러시아의 태도, 그리고 국내 정세 등의 문제로 어려워 보인다.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닌 강대국들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이룩된 정부는 민주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독재체제와 현재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러한 불안정하고 균열이 심화된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

CIS 국가들 중 색채 혁명이 일어난 다른 두 국가인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에서도 혁명의 긍정적 요소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연정을 시작한 상태였고, 현재는 다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있으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던 그루지야는 더 말 할 것도 없다. CIS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위의 두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과 비중이 작은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나 강대국들의 정책에서 비중 있게 비춰지지 않은 면도 있다. 이는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정권 연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키르기즈스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이다. 키르기즈스탄에는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카예프의 아이들이 키르기즈스탄의 정당을 지지하면서 정치에 계속적으로 관련하는 면도 크게 나타났다.  
53) 고재호. 민주정부 출범의 의미와 전망. 해외지역정(2005)

## 참고문헌

- Roman Mogilevsky 『Role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Disciplines: Kyrgyzstan's Experience』 (W a r s a w , J u n e 2 0 0 4)
- Zaynidin kurmanov(2006)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Kyrgyzstan: After the Revolution』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4) 『Kyrgyzstan political transition: problems and prospects』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Kyrgyzstan: a faltering state』
- World Socialist Web (2005) 『US Money And Personnel Behind Kyrgyzstan's Tulip Revolution.』
- Anders Larsson (2007) 『Santa should live in Kyrgyzstan. SWECO』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An uprising nourished by Western aid』
- Scott Nissen(2006) 『Understanding the colored revolutions:Successes and Failur』
- Tanya Charlick-Paley with Phil Williams and Olga Olikier 『The political evolution of central asia and south caucasus』
- Henry E Hale(2005) 『Democracy, Autocracy and Revolution in Post-Soviet Eurasia』
- Москва принимает вызов "цветных" революций .Андрей Рябов,Pro et Contra. №.1 (2005)
- BBC. RUSSIAN .COM (2005) 『Киргизия :власти готовы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оппозицией 』
- BBC. RUSSIAN.COM(2005) 『Власти готовы применить силу』
- BBC RUSSIAN.COM(2005) 『Кремль: Аскар Асаев находится в России』
- STRANA.RU(2005) 『Хаос в Бишкеке продолжает разрастаться』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2005) 『Революция толп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арварство против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авторитаризма:Бунт оппозиции на юге киргизи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вой не с у збекистаном 』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5) 『Из-за наших митингов у Асаева была истерика』
- 이채문. (2005)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친 서구 NGO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 이채문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007.2)
- 이홍섭 (2005) 『<러시아 초점> 키르기스스탄 사태,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가?』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5. 4)
- 고재남.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 고재호 (2005) 『민주정부 출범의 의미와 전망』. 해외지역정보
- 황성우. (2005) 『계속되는 시민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국제지역정보 05년 4월호
- 장병욱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인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정책과 관계』 아태 쟁점과 연구 (2007)
- 강봉구 (2008) 『키르기스스탄 총선 이후의 정치 현황: 재민주화의 험로』.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 김영희 (2005) 중앙일보 『미국 독주에 도전장을 낸 중·러동맹』
- 박민희 (2005) 한겨레 『이변엔 키르키즈 레몬 혁명』
- 박병광 (2007) 월간뉴스 한국 『밀착하는 중국-러시아, 그 배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정병기 (2005) 『색깔혁명과 국가이익의 세계재편전략』
- 강병태 (2005)한국일보 『지평선-레몬혁명 논란』
- 배무영 (2004) 한겨레 『미-러, 다시 군사적 대결로 가는가 』
- 프리덤하우스: 민주화지수 (<http://www.freedomhouse.org>)